



4면 국제금융중심도시 조성 금융총괄자문관 위촉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음 7월 23일) 제26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턱스크 · 입만 가린 마스크 '의무위반'

전북도, 세부지침 마련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예외사항 기준 등 명시 방사용 마스크 불인정

전북도는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올바르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특히 지난달 19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면서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대상은 물론 착용 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법률 위반없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마련한 세부지침에는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를 전북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규정했다. 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는 전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가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9월 전주시의 한 음식점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북도는 세부지침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장 적용사에도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세부지침과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세부지침은 일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일뿐 마스크 착용이 생활속에 습관화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도민들이 타 시·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북도 "8월의 산타클로스 역할 수행 감사"

도내 학생 21만3000명 가정에 농산물 2차 꾸러미 배송 완료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사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생 21만3,000명 가정에 3만2,000원 상당의 '학생 가정 농산물 2차 꾸러미'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교육청과 협업해 지난 8월 한달 간 68억원을 투입, 친환경(잡곡), 신선농산물(친환경·일반)과 지역산 가공품으로 구성된 가정 꾸러미를 도내 21만3,000명 학생 가정에 배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친환경 및 일반 농가 및 지역산 가공업체들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 이번 2차 꾸러미는 지난 5월 실시된 1차 꾸러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으로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본 꾸러미는 하절기 동안 배송된다는 점을 감안해 변질이 적으며 저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하고 보냉박스를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작 및 배송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꾸러미 작업이 진행됐으며 당일 제작된 꾸러미는 당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 완료되도록 사전 협의된 4개 택배사(우체국, CJ, 한진, 로젠택배)의 협업을 발휘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꾸러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협의회를 통해 시군, 급식센터,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꾸러미 구성 품목 선정을 진행했다. 절반(9만명) 가량의 학생수를

## 전교조 해직교사 3명 전국 첫 복직

도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취소... 급여도 보전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이 이뤄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3명(공립2명, 사립1명)에 대해 9월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부안 서립고로, 김재균 교사는 입실 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2020년 9월 8일



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들 해직 교사에 대한 지난 4년 7개월 동안의 급여도 보전에 주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원을 투입,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440여개 농가를 통해 총 2,578톤(94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소비하고 80여개 지역 가공업체의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러미 구성 품목 중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쌀 740톤, 친환경잡곡 463톤, 신선농산물 1,343톤 그리고 일반 농산물은 33톤이 소비됐다. 또한 도내산 농축수산물도 주재료로 사용된 80여개 가공업체의 제품인 학생 가정 꾸러미에 선정돼 이들 업체는 총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유독 길었던 장마라는 악재를 딛고 일선 현장에서 꾸러미 제작 및 배송을 위해 밤방울을 흘린 14개 시군 담당자, 학교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택배회사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한편 도는 9월 이후 도내 학교 등교 미실시 및 온라인 수업 실시가 한달 이상 추진될 경우 3차 꾸러미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정읍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전통시장 장보기!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샘고을시장과 정읍연지시장, 신태인시장에 오시면 정읍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종류의 먹거리와 저렴한 가격, 신선함과 인심은 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애용해주세요.

전통시장 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작은 실천입니다.

정읍시 JEONGUP-SI